

논란된 '보수' 역사교과서 보니... 유일하게 이승만 '장기집권'

교육 당국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가 보수 편향적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논란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 받는 한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교육계에서 입수한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8종(리베르스쿨 제외)을 살펴보니 이와 같았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독재'라는 서술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고 기술했다.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8종 살펴본 결과 한국학력평가원 3·15 부정선거 두고 추 '집권 연장' 나머지 7종, 모두 '독재' 표기... 차 퇴진 서술도 차이 논란 교과서, '민간인 국정개입' ... 본문엔 촛불 없어

반면 다른 7종은 모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루면서 '독재'라고 썼다. 비상교육, 미래엔 등을 보면, 4.19 혁명을 다루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도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촛불집회나 촛불시위는 연표에만 언급했다.

반면 다른 7종의 교과서는 모두 본문에서 2016년 촛불집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퇴진 요구를 다뤘다. 타 출판사는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해냄에듀), '촛불의 힘'(천재교과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분량이 비교적 적었다. 15쪽, 한 문단 분량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적는데 그쳤다.

반면 천재교과서는 본문 2쪽에 걸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뤘고 사료와 역사탐구활동 등까지 합하면 4쪽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학사가 1쪽 분량으로 다뤘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2~3쪽 분량으로 다루고 있었다.

제주 4.3에 대한 서술 분량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제주 4.3을 '1948

년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의 주도로 일부 제주도민들이 합세하여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고 적었다. 이후 정부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생겼다는 형태로 다소 짧은 분량으로 마무리했다.

일부권 '위안부'에 대한 서술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본문에서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며 한 문장을 적었다. 또한 참고자료와 관련 연습 문제를 썼다.

반면 천재교과서, 미래엔, 동아출판 등은 본문에서 이를 다루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미래엔은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가 성 노예로 삼았다'라고 적었다. 천재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선 등에 배치돼 성 노예 생활을 강요 받았다'는 방식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교과서 집필진 일부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집필진이 강연이나 저서 등을 통해 보수적인 발언을 했고, 역사교사 출신인 교육부 청년보좌관이 초고를 작성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번에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서술을 포함시켰다.

현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초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국사 교육과정을 손질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표현이다.

또한 지난 2023년 새 교육과정에서 빠져 '누락 의혹'이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은 주석회사리베르스쿨 발행본을 포함해 9종에 모두 반영됐다.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초졸 63명 · 중졸 112명
고졸 540명 등 총 715명
18일까지 성적조회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초졸 63명·중졸 112명·고졸 540명 등 총 715명이다. 합격률은 71%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0세·중졸 82세·고졸 71세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중졸 11세·고졸 13세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는 오는 13일까지 응시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www.jbe.go.kr) '교육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4년 제1회 검정고시부터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지역으로 시험장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8월 말로 정년을 맞은 교수들에 대한 정년기념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지난달 30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거행했다.

"평생 쌓아 온 업적 가꿔 보람 있는 일 많이 해주시길"

전북대, 정년 맞은 교수 훈포장 전수식 거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8월 말로 정년을 맞은 교수들에 대한 정년기념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지난달 30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수는 김용섭·유진식·이호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를 비롯해 이현상 교수(경상대 경영학과), 홍성훈 교수(경상대 경제학과), 양규혁 교수(경상대 회계학과), 강희용·김철생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과), 안병국 교수(공대

신소재공학과), 이종득 교수(공대 전자공학과), 김영두·정태성 교수(공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과), 나성삼 교수(농대 동물생명공학과), 윤성중 교수(농대 작물생명공학과), 권인탁·왕경수 교수(사범대 교육학과), 신호식 교수(사범대 독어교육과), 김경근 교수(사범대 역사교육과), 최원규 교수(사회대 사회복지학과), 강혜자 교수(사회대 심리학과), 류철희·조남천 교수(의대 의학과), 김철주 교수(자연대 화학과), 이진휴 교수(대학

본부 교육혁신처) 등 24명이다.

이날 정년기념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정년퇴임 교수 및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이 참석해 강단을 떠나고 있는 교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송덕사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연구와 교육적 성과는 후학들에게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비록 교정을 떠나더라도 평생 쌓아 온 업적을 더욱 빛나게 가꿔 보람 있는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29일 영선중학교에서 진행된 에듀테크 활용 공개수업.

영선중, AI 디지털 교과서 준비 공개수업

국어·과학·영어 등 에듀테크 기술 활용 수업 진행

영선중학교(교장 고명석)는 지난달 29일 AI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하기 위한 공개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수업은 국어·과학·영어·수학·미술 교과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영어 교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관용구 학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용구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실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수학 교과에서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타 수학과 지오지브라 등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펼쳐졌다.

고명석 교장은 "에듀테크 시범수업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폭 사안처리 Q&A 자료집 제작

전북자치도교육청, 담당교사 업무 경감·전문성 강화 위해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자 분리·피해학생 보호 등 담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자료집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긴급조치 △학교폭력 자체해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불복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장·교감 및 업무담당자에게 자료집을 책자 형태로 지급하고, 또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인 나눔우리에도 탑재해 필요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자료집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길 바란다"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전문인력 양성 '맞손'

전주기전대, SDG 그룹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단장 조덕현)은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SDG-Group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덕현 단장과 SDG-Group 성대근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 기자재, 각종 시설물의 공동 활용 및 실험 실습 지원, △LINC3.0사업단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사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인프라 형성, △교육 수익금 창출을 통한 지역민 교육 기회 제공 등이었다.

조덕현 단장은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의실 조성, 연구 기자재 도입, 교육과정 개발·개편 등 기반을 구축 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SDG-Group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써주세요"

전주대 창업금융학과, 학산중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전주대학교 창업경영금융학과 학생과 교수 일동이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새달라며 지난달 28일 125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주 학산중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복리사업 중 하나로 복지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학산중합복지관은 무인 식당에 무료라면 조리기를 설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립 위험 가구 등에 무료라면 쿠폰을 나눠줌으로써 결식을 막고 외부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학산중합사회복지관 노미나 팀장은 "출로 사는 어르신들이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반갑고 매우 좋다"며 "조소가정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겨 어르신들도 만족해 한다"고 설명했다.

(주)유니온시티 유혜숙 대표이사는 "전공수업 시간에 공동체 화해 꽃전 리빙랩, 금융취약계층에 꽃전을 대출해 주는 모두의 공간 리빙랩 등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 와보니 생생하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지역 아동에 간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지역 아동들에게 간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간식 지원사업은 2021년 시작돼 4년째 시행되는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너너사이언티 전북 68호 회원인 '이희상' 씨의 후원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도 800만원 상당의 차킨을 도내 4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최현영 단장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